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7호 [투게 제2210호]

주제 102 (2013). 2

9

토요일

음력 12. 29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대륙함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 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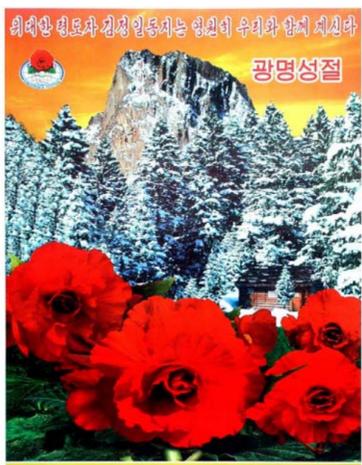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결론을 커다란 격정속에 받아안은 회의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결론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려지고있는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길에 과감히 펼쳐나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히 열리게 될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부각된 선전화의 우부분에는 《광명성절》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아래부분에는 《제17차 김정일화축전》이라는 글발 그리고 축전장소와 기간이 반영되어있다. 선전화의 중심에는 흰눈덮인 웅장스러운 정일봉과 수림, 백두산밀영도향집이 숨엄하게 형성되어있으며 위대한 선군대양을 우리러 활짝 피어난 크고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이 그려져있다. 선전화는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성황리에 진행될 대양의 꽃축전을 훌륭히 장식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제17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

본사기자

###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개막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온 나라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그리움과 경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열린 대회에서는 룡구, 배구, 탁구, 스키, 빙상호케이를 비롯한 8개 종목의 경기가 평양과 삼지연 등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이 5일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있었다. 로두철내각부총리,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체육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리종무체육상이 하였다.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경기대회 기발이 개막되었다. 암록강체육단 선수 김혜경, 기관차체육단 감독 리덕철, 4.25체육단 부단장 김광웅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룡산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사이의 남자 룡구경기가 있었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공화

본사기자

### 조국인민들과 함께 전면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이다

#### 총련본부 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본부 위원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규탄하여 1월 29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로무현은 조선의 자주권을 관용하게 침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결렬히 단죄한다고 밝혔다.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이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데 대해서는 전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오직 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최절정에 달하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강도적인 룡리로 일관된 《제재결의》는 천만번 부당하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반공화

한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쏘올린 조국의 우주정복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할 굳은 신념을 안고 결렬히 싸워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제재결의》조작에 돌격대가 되어 미쳐날뛰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는 역적패당과 같은 극악한 원수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절감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에게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장 조국제가 1월 24일 《일본의 위협천만한 군사대국화책동에 각성을 높이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이 미친듯이 로골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얼마전 일본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에서 군사비지출을 대폭 늘이기로 결정하는 한편 자체 《방위》에 국한되었던 군사전략을 제정도하겠다고 발표한것이 대표적실례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의 법적, 재정적담보를 마련하려는것이라고 담화는

차별질것이란 비참한 종말밖에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재중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적극 호응하여 조국인민들과 함께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을 비롯 산업살책동을 짓부서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까밝혔다. 담화는 일본반동들의 과거 침략사적과 군사대국화책동이 위험한 실천단계에서 맹렬히 추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력사는 외국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일본이 과거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사대국화로 나가는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출달음친다면 차제것은 오직 비참한 파멸뿐이다. 일본반동들은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평화번영의 리정표

민족이 일구어온 바라는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분열의 기나긴 력사에 인제기 없었던 격조적인 사면들로 가득찬 6.15통일시대에는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찾아주고 평화로 지켜주고 통일공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기치라는것을 겨레의 가슴에 진리로 뜨겁게 새겨준 가슴벅찬 날이였다.

돌이켜보면 반세기이상이나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면이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북남사이에는 삼국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렵게 열여섯던 내분령의 장벽에 파려주기 내려 하늘길, 땅길, 바다길

을 여는 장쾌한 사면들도 일어났다.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꿈속에서만 그러하던 그리운 혈육들을 만나 얼싸안고 회포를 나누는 감격적인 상봉들도 마련되였다. 북녘에서 《미녀유원단》이 왔다고, 남녘의 동포들이 《아리랑》관람을 왔다고 서로가 반갑게 맞고 기쁨을 터뜨릴 때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친것은 우리는 하나이고 통일을 능히 이룰수 있다는 벅찬 확신과 확신이었다.

혈연의 끈질기도록 녹이지 못하고 세월의 년륜으로도 깨뜨리지 못한 불신과 대결의 차디찬 얼음들을 녹이고 북과 남의 겨레를 뜻과 정이 통하는 진정된 하나로 다시 되게 해준것이 바로 6.15이다. 6.15공동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도 안겨주었다.

금강산과 개성에서 수십년 세월 강토를 가로질러온 가시철조망과 지리가 길히고 철도와 도로가 련결되였다. 백수십만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6.15가 안겨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수백여개의 남조선기업들이 민

족경제발전의 길에서 6.15의 혜택을 입었다.

2007년에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이 또다시 열리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채택되어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현 남조선 보수당국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초기부터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리명박 《정권》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지나온 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6.15의 길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

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로 인해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6.15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괴립압

살소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은 조성된 현에한 정세의 요구로 볼때 오늘날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하기에 지난 2일 진보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2013조국통일운동대토론회》에서는 현 정세하에서 《대결상태해소에 나서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중시하고리도 삼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게 울려나왔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힌 길을 따라 곧바로, 바로 이것이 조국통일성업실현의 길에 멀쳐나선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가슴속에서 타면지고 있는 철의 신념이다.

김진혁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기본리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끼리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이기때문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민족자주의 리익에 맞게 옳바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문제를 용케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동서고금의 력사를 통하여 확증된 철리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자주의 리념을 최고의 경지에서 구현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대명제이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그 어떤 외세

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복없이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옹호의 원칙을 세워나갈때만 확고한 민족자주의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혀주고있는 이 명제는 바로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을 힘껏 자주적으로 해결할때만 자주자신을 구현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가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철저한 민족대단합의 리념이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내외 분열주의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을 동반한다. 이 대결전에서 민족주체적 통일애국력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된다. 민족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 대단합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의 위력한 추동력, 결정적력량이 되여 안락의 분열주의

세력을 압도하면서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바로 민족주체적 통일애국력량을 비강화하여 반통일세력에 비한 통일력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할수 있게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는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하나의 피를, 하나의 민족으로서 굳게 손잡고 단합할때만 그 주인이 담겨져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사면들은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과멸의 운명에 처한 리명박 보수 《정권》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생발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마치 막말악을 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한 리명박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은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온 겨레는 안락의 분열주의세력

의 민족리간, 반통일전쟁책동이 우심해지면 질수록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자주에 살기를 원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합도 있고 평화도 있으며 통일조국의 번영도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정기풍

##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역원, 간사회의 진행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평통협) 역원, 간사회의가 1일 도쿄에서 진행되였다. 서충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과 역원, 간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서충언국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이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행사인 평화적인공위성발사를 불복시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올해 평통협이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리동제회장이 보고를 하였다. 당면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서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회의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파적발사를 《칸도미씨일기》를 리용한 발사》라고 결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감행한 《제재결의》를 채택하려는 포악무도한 날강도행위의 극치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하여 공화국이 국제적인 관례 이상의 투명성도 보장하고 우정정세가 온화한 때를 골라 발사시기를 택하는 등 위생발사의 평화적성격을 립증해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공화국은 지난 2009년 3월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을 가입하였으며 그후 조약상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공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해

당한 국제기구들에 위생발사기간과 추진체의 락구기 등 을 통보하였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우주과학기술전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서해위생발사장과 《광명성-3》호위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극비로 간주하는 위생

제정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여있다. 때문에 평화적위생발사는 예당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제로 상정될수 있는 의제라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생발사와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였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

히 준하여 진행된 공화국의 위생발사가 《비법》이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론리는 국제우주조약자체가 비법이며 지금까지 모든 조약상권리주들이 진행한 위생발사가 비법적인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한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

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합구 무언하는 이 현실을 과연 무엇이라고 설명할수 있단 말인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우주개발권리를 관용하게 유린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의 근대화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끝내 버리지 못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전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 평화적우주개발과 리용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정확준

## 《황당하고 악랄한 궤변》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원 로인사들이 서울에서 6.15. 10.4선언지시리행과 《대북적대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통일투쟁을 벌였다. 아래의 글은 한 통일참가자가 쓴 글이다. 《인류가 생긴이래 가장 황당하고 악랄한 궤변이 전 세계의 망심을 경악케 하고 있다. 남이 하면 불문이고 내가 하면 량반이라는 식의 포악하고 난감도같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안은 수백만의 인디안원주민을 학살한 피바다우에 나라를 세운 미국의 21세기 서부활극이다.

《광명성-3》호 2호기와 《나로》호가 다른점은 딱 하나다. 《광명성》은 미국의 제국주의패권과 정면으로 직결승부를 치르고있는 북의 인공위성이고 《나로》호는 리승만이후 최고의 《한미동맹》이라고 자화자찬에 빠진 나라의 인공위성이 라는 차이밖에 없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환관 조고라라는 자가 사슴을 두개 달라고 하였다(지록유마) 사슴을 사슴이라고 직언한 자는 모두 무고죄를 덮어 씌워 잡아가두고 제치하였다는 고사가 있다.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찬성한 나라들은 모두 환관 조고와 같은 지록유마를 한 풀인데 엄연한 유엔가입국이고 주권국인 나라의 인공위생발

사의 권리를 놓고 패거리를 지어 몰매칠을 하는 한편의 치졸한 폭력영화를 보는것 같아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것은 거의 60년이나간 사람들에게서나 볼수 있을법한 히스테리같은 생트집잡기와 《제재》소동에 우리가 사는 금수강산에 전쟁의 진한 먹구름이 엄습하고있으니 이 치명리는 가슴을 무엇으로 진정시킬수 있었는가. 이러한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 총합청사앞에서 3일째 통성을 진행하였다. 북핵실험이 립박했다든 보도가 련이 아니고 리명박 《정부》와 미국은 또다시 더 강력한 《제재》론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상식을 갖고있는 국민이 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했겠다. 《광명성》을 쏘올린 로케트추진체를 굳이 《칸도미씨일》이라고 우겨댄다면 《나로》호는 풍선에 매달아 쏘 올린것인가. 상식을 짓밟는 야만의 시대, 사실을 외무하는 폭력의 시대, 민족을 부정하는 전쟁의 시대는 리명박 《정권》이 불러왔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까지 오로지 침략적이고 예측적인 《한미동맹》에 의지하여 《제재》와 분쇄, 대결과 전쟁으로만 일관하며 씻을수 없는 공

## 포악무도한 적대행위

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시키는 특례인민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처럼 공화국의 위생발사계획의 평화적성격을 제 것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외발》을 떠들며 또 다시 새로운 《제재결의》를 채택한것이야말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고 도전으로 된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말그대로 국

제정평화와 안정을 유지회복시키기 위한 대책문제들만을 의제로 하게 되여있다. 때문에 평화적위생발사는 예당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토의제로 상정될수 있는 의제라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위생발사와 지하핵시험이 진행되였어도 언제 한번 유엔안전

만과 이증기준에 얼마나 못졌어있는가 하는것은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1월 27일 일본은 지상 40Km와 1m크기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는 정찰위성 2기를 단번에 발사했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정확준

## 반공화국대결광란의 최절정

에 걸고 10여년간 잘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키고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완전히 격체시켜버렸으며 약명 높은 《5.24조치》도 발표시켰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을 공화국의 《금변사태》를 꿈꾸며 열로당도않은 《기타리는 전략》이란것도 구사해왔다. 결과 리명박보수 《정권》의 지난 5년간 일어불은 북남관계를 개선해보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엔 단 한번의 변변한 대화조차 있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외세와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준비소동과 공화국의 최고준엄에 대한 투대형도발, 비라살로 등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를 조성하였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하의 통일》이라는 허황한 《홍수 통일》야망에 사로잡힌 리명박보수패당이 북남관계에서 해놓은 일이란 6.15시대의 성과물들을 모조리 말아먹

고 정세를 극단한 대결국면으로 돌려세웠으며 온 겨레가 일일천추 갈망하는 통일애국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놓은것뿐이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온 겨레는 민족의 머리에 재앙만을 불러오는 리명박보수 《정권》의 동족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리명박의 《대북적대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그것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여왔다. 그런데 리명박 《정권》은 숨겨가는 오늘날에도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여 달려대 그것을 합리화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들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생발사성공을 두고 저저마음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고이 대고있으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앞장에서 동분서주하고있다. 그들이라는 이미 형제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들이 비웃을것이라는것을 느낄만 한 인간의 초보적인 리성마저

결여되어있는것이다. 리명박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광란은 립중에서 처한 자들의 마지막말약으로서 이래저래 다 망한 판에 미국상정들을 등에 업고 허세를 부려 만신창이 된 체면을 조급이 따도 추세우며 도발의 불꽃을 휘둘러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고가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던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정확준



남조선미국합동군사훈련과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그것이 각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하긴 했지만 현인력, 류우익과 같은 대결파들을 팔라가며 통일부 장관자리에 앉히고 대결적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고집해왔다. 그들은 관공재사건을 코

이상한 론리에 대해 북이 반발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했기 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만약 당국과 미국이 《제재》를 중지한다면 조선반도에 상상할수 없는 위기가 조성되고 사태는 더욱 악화될것이라고 밝혔다.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 남측본부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1월 3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더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에 경고하였었다. 단체들은 당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하거나 《독자적

인 제재》에 나선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련 남측본부 비롯한 각계 단체들이 1월 3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더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에 경고하였었다. 단체들은 당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하거나 《독자적

인 제재》에 나선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항의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 10개 단체가 1월 29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항의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류례없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가 쓰면 위성이고 북이 쓰면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성명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류례없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가 쓰면 위성이고 북이 쓰면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성명은 북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류례없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자기가 쓰면 위성이고 북이 쓰면 《장거리미사일》이라는

## 당국에 경고

있는 남조선당국에 경고하였었다. 단체들은 당국이 유엔 《제재》에 가담하거나 《독자적

인 제재》에 나선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 사 대 매 국 으 로 얼룩진 《정부》

남조선에서 《실용》의 간판을 들고 보수세력이 권력의 자리에 들고앉은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오판과 전횡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존엄은 여지없이 유린당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 외세의존책동이 빚어낸 파국적후과이다.

리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의 체질적본성은 집권 전에 벌써 뚜렷이 나타났다.

집권하기 전부터 지난 10년간 《소원》 해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였다고 기업을 토한던 보수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부 터 찾아가 《남조선미국 《동맹》을 튼튼히 하자》고 맹약하였으며 상진에게 남조선미국관계의 《복원》을 구걸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보수 《정권》은 남조선미국관계의 《장조적발전》을 주요 《국정과정》으로, 대내외정책의 주요목표를 미국과의 《관계우선》, 《관계복원》

으로 설정하고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켰다.

이를 위해 리명박 《정권》은 권력의 요직부터 친미분자들로 일색화하였다.

청와대와 내각의 장관급이상 고위각료직에 미국류학경력을 가진자들과 미국과 연결된 친미분자들을 들어앉혔으며 《대통령》 직속 《국제자문단》이라는 것을 내오고 자문위원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가들을 끌어 들였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이 권력구도에서 《민족공조우위구도가 사라지고 대미공조가 올라섰다》고 전한것은 우연치 않았다.

리명박은 이른바 《경제대통령》의 허울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것처럼 떠들었지만 집권 5년간 해놓은것이란 남조선경제를 미국에 철저히 예속시켜 민생

을 도탄에 빠지게 한것뿐이다. 보수집권세력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소고기시장, 자동차시장, 금융시장 등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남조선경제를 미국의 식민지화정경제로, 철저한 외자의존형 경제로 전락시킨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수집권세력이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 성사를 위해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늘음을 벌리는통에 남조선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히 위협당하고 20여만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보수집권세력은 외세에 동냥족박을 내밀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기간을 대폭 늘여주는 등으로 경제의 외자의존도를 극도로 심화시켰다. 결과 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 특히 은행업분야에서 주식의 60% 이상을 보유하

여 남조선경제의 명줄을 틀어쥐었으며 불리할 때는 알수를 다 건어가지고 빠져나감으로써 남조선경제를 헤쳐날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파도가 들이닥치자 외국기업들이 남조선주식시장에서 한달에 30억~40억US\$씩의 자금을 댄데 미국에 빼내감으로써 경제를 민사상태에 몰아넣은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더우기 리명박 《정권》은 미국이 없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떠들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반대하는가 하면 미군유지비와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더 말아 나하면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였다. 한편으로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친일독재세력의 돈으로 동족대결을 위한 수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는데 급급하였다.

《맹》 관계가 보수당국에 의해 수직적종속관계로 부활되고있다고 평한것은 조금도 틀린것이 아니다.

리명박 《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라 민족의 백년축적인 일본에게도 이어졌다.

보수집권세력의 친일굴종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게 서슴없이 섬겨바치고 일본의 북수주의야당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보수집권세력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기운을 무마시킬 기도멸에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친일과명단에 오른자들에게 《공(공로)》과 《과(잘못)》를 따져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싸주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일제식민지통치기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시켰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제창하는 추태까지 부

리었다. 대대적 조선사람치고 그 누가 일제식민지통치에 박수를 보내며 《공》을 론할수 있겠는가.

리명박이 얼마나 고질적인 친일분자였는가 하는것은 일본왕 앞에 고개를 숙여 절하고 일본수상에게 독도문제를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참아달라》고 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일본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다가 남조선각계의 한결같은 항의에 부딪쳐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리명박 《정권》의 이러한 사대굴종행위로 하여 지금 일본의력사외, 독도갈탈책등은 날을 따라 로골화되고있으며 지어 《유사시》 일본인구출을 구실로 《지위대》의 조선반도진출까지 거론하고있는판이다.

실로 리명박 《정권》의 집권 5년간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존엄, 민족의 리익을 외세의 퉁방물로 만들고 온 민족에게 파국적인 재난을 몰아온 최악의 5년이었다.

그러나 리명박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행적을 돌이켜볼대신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본성을 버리지 않고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불법법외의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결코 최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핵잠수함과 이지스순양함 등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것은 그를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외세와 야합하여 판도질하는 리명박 《정권》이야말로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부 굴종하는자들을 력사와 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본사기자 리광성

##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 불러올것은 ...

최근 미군과 남조선호전세력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선동해상에서 잠수함훈련과 대함 및 대공훈련, 해상전술기동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 《무력시위》 놀음에는 미군의 핵잠수함 《엔드랜치》호, 이지스순양함 《사일러스》호, 10여척에 달하는 남조선 함정들과 대잠초계기, 대잠정수기까지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B-2》 스텔스폭격기 2대를 본토로부터 팔도로 전진 배치하였으며 미7함대소속 함공모함도 곧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하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번 미국과의 연합해상훈련의 목적이 《북의 핵시험과 도발가능성》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자회의 《제재결의》를 결코 벌어지는 북침도발책동이 얼마나 엄청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리명박 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공화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보장난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2009년에 왔던 서해무장도발사건과 2010년 3월의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 11월 연평도사건은 물론 해마다 벌어졌 《울지호 커스 렌즈》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들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에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특대형도발행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국방백서》에 북을 《주적》으로 조아 박았는가 하면 뺨질나게 전연연대회를 나몰라 《단호한 응징》이니, 《원점타격》이니 하면서 전쟁열을 고취한것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대응의지에 대해 《국가도발》이니 뭐니 하며 군사적공격태세를 갖추고 미국상진의 전쟁지령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렇듯 다치면 터질듯 한 긴장한 정세속에서 또다시 대결발목을 일으키고있는데는 추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핵전쟁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

고 대아시아제권력을 실현하려는것이 바로 미국의 진짜속심인것이다. 또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이 기회에 상전을 등에 업고 최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우고 어떻게 하나 다음 《정권》에 공화국에 관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점군의 범죄적만행을 묵인조장하고 범죄자들을 《제재》와 대결의 바통을 넘겨주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사기술적우세를 저돌단의 독점물로 여기면서 선제타격과 전쟁에 대한 선택권도 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만약 미국과 리명박호전세력이 사태를 오판하고 이 땅에 이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르다면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것이며 이 모든 엄청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지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단호한 조강지름장엄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산갈일이 일어나면 인민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후판까지 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 명금룡

남조선미국 《행정협정》(SOFA)이 발표된 때로부터 46년이 되었다.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되어 다음해 2월 9일에 발표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경제를 합법화하고 형사재판, 로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에서 미군에게 부패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강점군의 범죄적만행을 묵인조장하고 범죄자들을 《제재》적으로 보호해 주는 심히 굴욕적이며 불평등한 《노예문서》이다.

지난 한해동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17일 남조선주둔 미군 2사단 소속 한 사병은 동두천시 보산동의 숲집에서 20대의 중얼원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주인의 얼굴까지 심하게 구타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9월에도 미군사

병이 10대의 나 어린 녀성을 여러시간동안이나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하기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동두천미군기지주변의 녀성들은 지금도 《바스락소리만 들러도 무서워 잠을 잘수 없다》, 《미군만 보면 소름이끼다》, 《미군을 당장 내몰아야 한다》며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군사병이 자기와 동행한 여러명의 미군과 함께 지하철도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20대의 녀성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불평등한 《SOFA》의 보호 아래 머리칼 한오리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자기 소굴로 돌아가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 주인공행세를 하고 있는것이다.

실제로 남조선강점 미군의 범죄자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 최근년간 발생한 미군의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건수만 놓고 보더라도 2010년 125건, 2011년 129건으로서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있다.

##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불평등한 《노예문서》

병이 10대의 나 어린 녀성을 여러시간동안이나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사회의 경악을 자아냈다. 하기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동두천미군기지주변의 녀성들은 지금도 《바스락소리만 들러도 무서워 잠을 잘수 없다》, 《미군만 보면 소름이끼다》, 《미군을 당장 내몰아야 한다》며 분노에 치를 떨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 남조선금속로조 총과업 전개

남조선의 금속로조가 1월 30일 당국의 반민적작업계획에 항의하여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 총과업투쟁을 벌렸다.

단체는 정례회도 열며, 로조파괴 등 동맹투쟁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로총은 금속로조의 총과업투쟁과 관련한 집회를 가졌다.

##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 폭로

1월 30일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라는자가 거액의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자는 지난해 한 살인범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 500만원의 받았으며 그를 로조파괴 등 특별명회시켜주고 또 300만원을 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가 수습할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사회의 비난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 부정부패죄인들을 석방시킨 집권자를 비난

남조선의 량심수석방공동행동이 1월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정부패행위로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특별사면》의 명목으로 석방시킨 집권자를 규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반민권적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리명박의 이번 《특별사면》은 강대집단이나 절수 있는 것으로 과편지의 절정시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반민권적

##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얼마전 《새누리당》 대표 황우려가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결코 또 현실수행하였다. 그는 북의 《인권》상황이 어떻다느니, 유엔에 그 무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대결의식이 팔수에 배인자들이 특하면 내놓는것이 북의 《인권문제》이다.

모든 공화국은 사회주의 명명국진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인민, 그 이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였다.

사람, 인민대중을 우선시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그런 사회, 그런 제도에서 《인권문제》란 애초에 성립될수 없다.

황우려가 또다시 케케묵은 《인권》타령을 늘어놓는것을 보니 그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다. 인권문제를 말하려면 제가 살고있는 주변부터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세계에 《자살왕국》이라

## 단순한 말실수인가

그러나 리명박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행적을 돌이켜볼대신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본성을 버리지 않고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에 대한 불법법외의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외세와 야합하여 판도질하는 리명박 《정권》이야말로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부 굴종하는자들을 력사와 민족은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본사기자 리광성

## 열심히 일했다니

하느라 열심히 머리를 꺾이고 허리를 굽혀서 그것이 이룰게고, 솔선 앞장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못해 측근들을 권력의 자리에 끌어올려 부정부패에 내모드라 팔다리가 쏠것이다. 나중에 그는 그 부정부패행위들을 덮어 버렸다고 모지름을 쓰느라 피줄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리명박이 열심히 일한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최대의 부실공사인 4대공공사도 온 남조선땅을 파헤치느라 열심히 일했고, 《천체별정적》으로 1% 부자들의 살을 찌

## 우기 위해 99% 서민들의 등가죽을 벗겨내라

우기 위해 99% 서민들의 등가죽을 벗겨내라 열심히 비지땀을 흘리고, 《명박산성》을 쌓아 인민들을 탄압하고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하느라 열심히 눈알을 굴리고, 통일진보인사들을 철창속에 끌어가기 위해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있다. 《비핵, 개방, 3 000》 따위의 차단봉으로 조계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원칙적 수》니, 《5.24조치》니 하는 불신과 대결의 폐속들에 열심히 대못질을 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단것은 물론 외세 등에게 업고 북침전쟁을 저지르기 위해 온 남조선땅에 화약내를 풍기느라 열심히 부채질한것도 리명박 《정권》이다. 천하에 줄도 없는 이런 반역자에게 남조선민심은 《4대강과 내국동사자의 후속으로 력사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열심히 하셨으면 한다》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그 시각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일 격정적언론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니까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일 격정적언론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니까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일 격정적언론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니까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일 격정적언론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니까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리명박이 공화국을 가리켜 《단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에서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 오찬이 있었는데 그자리에서 그는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일 격정적언론은 혹시 북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점》이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던 끝에 《북은 정상적으로 예측해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는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한 리명박의 그릇된 견해와 관점의 발로라고 하고있다. 결코 틀린 평가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명박의 말과 행동을 따져보면 공화국에 대한 그의 견해와 관점을 잘 알수 있다.

그는 집권하기 바쁘게 북이 핵을 포기하면 얼마만한 《경제적대가》를 제 공한다는 식의 《비핵, 개방, 3 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왔는가 하면 외세와 결탁하여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모양모로 책동하여왔다. 지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합법적인 우주개발리니까지 시비질하며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광분하여왔다. 한편으로는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포안법》을 마구 휘둘러 진보적인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관점,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이



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일시: 2013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근처(삼동문사거리) \*주최: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

# 날로 꽃피어가는 민족성

설명절을 앞둔 요즘 각국의 조선옷집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 가운데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잘 만드는 것으로 소문난 보통문 조선옷집도 있다.

《색깔도 우아하고 무늬도 세련된게 정말 보기만으로도》

《역시 우리 조선녀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만큼 잘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어 보며 웃음을 짓는 녀성들속에는 대학생치녀도 있고 중년부인도 있으며 평범한 이복에서 만든 치마저고리를 입고 70대생일상을 받는다는 할머니도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귀염둥이 딸애의 색동저고리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젊은 녀인의 얼굴도 보인다.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니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민족성을 적극 살려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이 다시금 폐부에 와닿는다.

평양과 각 지방들에 조선옷집들이 있고 녀성들은 우아하고 화려한 조선옷을 즐겨입고있다. 옷차림뿐 아니라 몸단장과 머리단장에도 로부터 단정하고 고상한것을 좋아하여는 우리 민족의 정

세에 맞게 해가고있다.

육류관, 청류관, 평양면옥, 평양단고기집, 선경종합식당 등 평양의 이름난 식당들에서는 평양랭면, 녹두지짐, 단고기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음식들을 봉사하고있으며 해마다 각지에서는 민족음식에 대한 품평회가 진행되고있다.

설명절이 오면 부모들과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추석날에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 인사를 드리는 등 민족의 미풍양속이 날로 꽃피어가고있으며 베스인에서 늙은이들과 애기어머니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적극 살려가는 공화국과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민족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

문은 TV, 방송, 출판물 등에 외래어가 범람하고 노래와 무용도 대부분이 미국의것을 모방한것들이라고 하면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지고있으며 미국과 일본, 서방의 문화가 판을 치고있는 남쪽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외국문화가 범람하는 남조선사회에서는 이른바 《다문화사회건설》바람때문에 민족성이 사라져가고있다. 《다문화사회건설》이란 국경없는 《세계화》시대를

운운하며 외국인들의 거주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문화를 받아들여 남조선을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사회로 만든다는것이다.

현재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은 14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은 18만 2 000여세대이며 여기서 출생한 혼혈인수는 무려 17만 명이나 된다.

외국인과 혼혈인이 증가하면서 《빙》, 《포》, 《너》, 《밤》, 《달성》 등 400개이상의 해외방송들이 새로 생겨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성씨관념이 없어지고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경에 가서 새로 태어날 아이 3명중 1명이 혼혈아가 되고 2050년경에 가서는 외국인수가 남조선의 전체 인구의 60%를 넘을것이라고 하고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 하나의 풍조로 되면서 그 비율이 전체 결혼전수의 9.3%를 차지하고있으며 특히 농촌지역들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40%에 이르고있다.

상반되는 두 제도의 현실은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김준경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대동강구역종합양복점 육류조선옷집에서-

## 우리 민족의 인사법

다가오는 10일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즐겁게 쇄어온 설명절이다.

설명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일먼저 세배를 떠올린다. 설날아침 사람들은 돌아간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설날이 오면 로인들은 세배를 하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게 간단한 레물들을 주고 여러광도 받아주면서 기뻐하였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집안의 웃사람순서로 차례차례 세배를 드렸으며 마을의 로인들, 스승들을 찾아가 머리숙여 인사를 하는것을 법도로 여겼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인사법은 설명절날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있다.

거리와 마을에서, 직장 가정에서 서로 만나면 머리를 숙여 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진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 나름의 인사례법들이 얼마나 많은가.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잡았다놓는 악수법, 두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의 인사법처럼 대상에 따르는 례의표시가 충분하고도 명백한 인사법, 문화, 위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민족의 기본인사법은 절을 하는것이다.

으로부터 우리 인민은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것으로 상대방에게 례의를 표시해왔다.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 사람에게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고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인 경우에는 허리를 절 반까지 굽혀 인사를 한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 대해서도 머리를 숙여 답례를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한다.

공화국에서 오늘도 면면히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은 온 나라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고있다.

그러면 공화국이 건설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어떤 나라인가.

무엇보다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성을 지닌 선진적인 나라이다.

해당 사회의 문명수준은 그 사회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문화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람들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생활을 아름답고 선진하게, 밝고 명랑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

또한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나라이다.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은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객관적요인으로서 여기에

생태환경 등이 포함된다. 가장기초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고있다.

그러면 공화국이 건설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은 어떤 나라인가.

무엇보다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생활을 아름답고 선진하게, 밝고 명랑하게 해나갈수 있으며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다.

또한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나라이다.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은 사람들의 문화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객관적요인으로서 여기에

《예비병동사관생도》

얼마전 함경남도 리원군 활서로동자구 38인민반에 사는 김진호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고질적인 심장병으로 고쳐질 수가 없었던 아들 충별이가 평양의 김만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쾌되어 퇴원한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부둥켜안고 어디 보자, 이게 정말 다 죽었던 우리 충별이가 맞긴 맞는가며 눈을 비비었다. 일본에서 날다가 귀국한 충별이의 아버지 김진호와 할머니는 《일본땅에서라면 우리같은 로동자집안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수술에 착수하였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가 예견하였던것보다 너무도 심각하여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인간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 환자를 기어이 소생시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7시간에 걸친 긴장한 수술전투를 벌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환자가 생명을 지키고 있을 때 의료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

었다. 참으로 인간애로 눈물나는 이 땅의 보건의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후 의료인들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환자가 추위할새라 털내의병원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아팠다. 그들은 우리로 두 환자의 부모형제가 되어 환자에게 눈물을 심장의 박동을 되찾아주자고 하면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에 달려들었다. 곧 의사의 협회가 진행되고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세워졌다.

수술에 착수하였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가 예견하였던것보다 너무도 심각하여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인간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 환자를 기어이 소생시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7시간에 걸친 긴장한 수술전투를 벌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환자가 생명을 지키고 있을 때 의료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

었다. 참으로 인간애로 눈물나는 이 땅의 보건의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후 의료인들은 환자의 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환자가 추위할새라 털내의병원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가슴은 아팠다. 그들은 우리로 두 환자의 부모형제가 되어 환자에게 눈물을 심장의 박동을 되찾아주자고 하면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치료전투에 달려들었다. 곧 의사의 협회가 진행되고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세워졌다.

수술에 착수하였을 때 환자의 심장상태가 예견하였던것보다 너무도 심각하여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인간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자각, 환자를 기어이 소생시켜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7시간에 걸친 긴장한 수술전투를 벌였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환자가 생명을 지키고 있을 때 의료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

## 산골군에도 먼거리의료봉사체계 도입

연안군인민병원에서

《과장정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환자의 병이 호전되지 않아 협의회를 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보내고 치료정형을 알려주십시오.》

여기는 황해북도 연안군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이다. 화면을 통해 황해북도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과 상담중이다.

지난해말에 입원한 한 중환자를 군인민병원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해보았으나 차도가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도인민병원에 도움을 청한것이다.

퓨터망을 통해 전송된 환자의 병력과 실험검사결과, 투약정형 등을 로해한 도인민병원의 송영태과장과 김명철과장, 곽광호과장들은 진지하게 협의한 끝에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시해주었다. 이로써 환자의 병을 치료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도인민병원과 군인민병원 사이의 거리는 수백여리, 지난 시기에는 운수수단을 통해 환자를 도인민병원으로 후송하여야만 하였다. 도인민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들면 중앙병원에 후송하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먼거리의료봉사체계의 덕이다.

지난해에 공화국에서는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중앙병원들과 각 도인민병원들은 물론 자그마한 산골군의 인민병원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세워졌다.

준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 국가적인 의학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해놓고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말단보건의료기관들에서도 그 자료들을 적극 리용할수 있도록 종합적인 망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거리의료봉사체계는 더 큰 온을 내게 될것입니다.》

연안군인민병원 먼거리의료봉사실 의사 박찬관선생의 말이다.

퓨터와 촬영장치, 역정TV 등이 일체화되어 하나의 망으로 련결되어있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앞으로는 국가적인 의학정보자료기지를 통해 치료경험과 수술과정, 보건강식을 비롯한 의학정보들을 접하고 배우며 자기의것으로 만드는데서 주요한 수단으로 될것이라는 그의 말에 박찬관선생의 밝은 앞날에 대한 긍지가 흘러넘



##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이 낳은 결실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격찬

김정은원수님께서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평양에 초청하시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최상 최대의 특혜와 뜨거운 은정

김정은원수님께서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평양에 초청하시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최상 최대의 특혜와 뜨거운 은정

이곳에서는 저마다 필요한 고서적들을 고르기도 하고 책갈피를 번지며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꼭 가지고있었던 책을 사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청년대학생들도 여기 고서점의 빼놓을수 없는 《단골 손님》들이다. 그들은 주로 사전류를 많이 사가고있는데 그 수요가 높다고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산다는 현충회는 이곳에는 필요한 책들이 많아 자주 오게 된다며 웃었다. 다양한 문예도서들과 보건의학도서들을 팔라든 사람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최미욱책임자는 높아가는 독서열의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적소양과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이곳에서는 저마다 필요한 고서적들을 고르기도 하고 책갈피를 번지며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꼭 가지고있었던 책을 사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청년대학생들도 여기 고서점의 빼놓을수 없는 《단골 손님》들이다. 그들은 주로 사전류를 많이 사가고있는데 그 수요가 높다고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산다는 현충회는 이곳에는 필요한 책들이 많아 자주 오게 된다며 웃었다. 다양한 문예도서들과 보건의학도서들을 팔라든 사람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최미욱책임자는 높아가는 독서열의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적소양과 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홍범식

세포동판은 백두대산줄기에 속한 마식령산줄기와 철령산줄기 등 조국의 북부와 동부, 서부도 백은 산줄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교적 평탄한 고원이다.

수수천년 잠자던 여기

해발높이 400~1 000m산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있는 무연한 세포동판은 종합적인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면시킴이 위한 군민련환필기모임이 지난해 12월초에 있었다.

세포, 평강, 이천지구를 포함한 드넓은 지역에 수만정도의 인공물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소, 양, 염소, 토끼, 돼지를 기를수 있는 집집승우리와 현대적인 고기생산기 및 젓가공기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기, 저류기와 방목도로, 살림집을 건설하며 바람막이숲을 조성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올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가려는 공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 일떠선 장전거리에 평양고서점이 있다. 이곳에는 도서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다.

이곳 고서점의 최미욱책임자는 기자에게 《우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에 맞게 많은 고서적들을 수집하여 손님들에게 팔아주고있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고서점을 통한 책보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장려되고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헤이온 마을이라는 마을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모아들인 고서적들을 수십여개의 고서점들을 차려

## 흥성이는 평양고서점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 일떠선 장전거리에 평양고서점이 있다. 이곳에는 도서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책들이 있다.

이곳 고서점의 최미욱책임자는 기자에게 《우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에 맞게 많은 고서적들을 수집하여 손님들에게 팔아주고있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고서점을 통한 책보급은 세계적으로 널리 장려되고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헤이온 마을이라는 마을에서는 세계적범위에서 모아들인 고서적들을 수십여개의 고서점들을 차려



## 봄을 부르는 곳에서

새로 세운 전투를 벌려나가는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애국열이 얼어붙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있다.

세포동판건설 중앙현장지휘부 책임자 리철민은 말한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는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야겠다. 우리는 이 기계로 인공물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올해 봄부터 씨뿌림을 하여 세포동판에 사회주의무릉도원을 펼쳐 나갈것이다.》

무릉도원이 펼쳐진다

현재는 세포동판에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기지와 군마장을 설치하는 한편 군대부식을 보장하기 위한 《싱기리공장》(우유를 썰어 말리우는 공장)을 차려놓고 이 고구려 주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던것이다.

해방후 공화국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인민들의

새로 세운 전투를 벌려나가는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애국열이 얼어붙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있다.

세포동판건설 중앙현장지휘부 책임자 리철민은 말한다.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는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야겠다. 우리는 이 기계로 인공물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올해 봄부터 씨뿌림을 하여 세포동판에 사회주의무릉도원을 펼쳐 나갈것이다.》

무릉도원이 펼쳐진다

현재는 세포동판에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기지와 군마장을 설치하는 한편 군대부식을 보장하기 위한 《싱기리공장》(우유를 썰어 말리우는 공장)을 차려놓고 이 고구려 주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던것이다.

해방후 공화국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인민들의

있고 하천에는 열목어와 어룡치 등 20여종의 민물고기들도 있다. 그리고 톨린강과 남대천 그리고 북한강지류들에 의하여 분수령을 이루고있는 세포동판에는 고미란천과 톨린천 등 하천들이 풍부하고 저수지들도 많아 개간전망이 좋다.

세포동판에 첫수며 양떼가 휘구름처럼 흐르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초원에 청춘들의 랑만적인 노래소리 울려 퍼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떨쳐나섰다. 세포동판에 울리는 구호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가자!》이다.

개간공사가 벌어질지 이제 두달도 안되겠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훌륭하게 풀어나갈 결의에 넘쳐 산을 넘어도 단숨에 강을 건너도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져 단숨에 노래부리며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세포동판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본사기자 박단희

있고 하천에는 열목어와 어룡치 등 20여종의 민물고기들도 있다. 그리고 톨린강과 남대천 그리고 북한강지류들에 의하여 분수령을 이루고있는 세포동판에는 고미란천과 톨린천 등 하천들이 풍부하고 저수지들도 많아 개간전망이 좋다.

세포동판에 첫수며 양떼가 휘구름처럼 흐르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초원에 청춘들의 랑만적인 노래소리 울려 퍼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떨쳐나섰다. 세포동판에 울리는 구호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나가자!》이다.

개간공사가 벌어질지 이제 두달도 안되겠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보다 훌륭하게 풀어나갈 결의에 넘쳐 산을 넘어도 단숨에 강을 건너도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져 단숨에 노래부리며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세포동판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본사기자 박단희

《모야!-》  
《아-》  
《한번 더 하라.》

# 웃 가 락 에 흥 이 난 다

웃관을 둘러싼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속에 또다시 퍼중으로 추겨주는 웃가락들, 이번엔 또 《숨》이 나왔다. 그러자 흥이 나 어깨를 들썩이며 두동산씩 말을 모아 전진하는데 바삭 긴장해진 다른 편에서 작전을 새롭게 짜자고 맹렬한 추격전을 벌인다.

이것은 설명절을 앞두고 진행되고있는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인동 79인민반 주민들의 웃놀이경기장면이다. 이곳 인민반의 김옥희인민반장은 총별로 한팀이 되어 승자전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숨》, 《모》가 나왔을 때의 기쁨의 탄성이 엇갈려 분위기는 시간이 흐름수록 고조되어갔다. 예로부터 웃놀이는 놀이 방법이 다양하고 몇사람이 건 짝만 맞으면 어디서든 놀 수 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설명절때마다 제일 즐겨하는 민속놀이였다. 가족, 친척끼리 혹은 온 마을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떠들썩한 웃놀이경기를 즐기며 웃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기도 하고 눈에 생시미를 켜고 승부를 다투는 웃놀이경기, 흥겨움과 긴장감, 량만속에 한바탕 웃놀이를 하며 사람들은 화목과

단합을 도모해간다. 하기에 김옥희인민반장은 웃놀이야말로 할수록 더 하고

실고 승부를 떠나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정말 좋은 민속놀이라면서 온 인민반의 관심속에 설명절에 펼쳐지게 될 결승경기는 더욱 불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박원평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1)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광명성절  
2)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강의날자: 1) 주체102(2013)년 2월 15일  
2) 주체102(2013)년 2월 15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봄 이 시작 되는 설 날

우리 나라의 사계절 가운데 제일먼저 찾아드는것이 봄이다. 그리고 한해의 민속명절 가운데서 제일먼저 맞는것은 설이다. 설날은 한해의 첫날이자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간혹 《설날이면 흰눈이 강산같이 쌓여있는데 봄이 라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하늘땅이 열린이래 오랜 세월 음력을 써온 우리 조상들은 립춘과 가까운 력설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고 보아왔다. 그들은 설날을 《새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여 《신춘》 또는 《춘정월》이라고 불렀으며

정월, 2월, 3월을 《봄철의 석달》이라는 뜻에서 《춘삼삭》이라고 불렀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므로 봄이 오는것은 취이 알리지 않는다. 설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고 하여 꽃이 피는 것이 아니며 계절의 차이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칼바람은 여전히 원형기리며 추위를 몰아오고 《동장군》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버티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두렵게 언 얼음장 밑으로 돌돌 흐르는 산골짜기의 시냇물소리가 들리와 봄이 오는것을 알수 있다. 시냇가의 버들강아지가 물이 올라 한껏 부풀며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르세

로 갖난이게순같은 어린 싹들이 솟아난다. 나무가지들에도 싹이 트고 꽃망울이 울망졸망 달린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다. 뜨거운 떡국을 후후 불며 먹을 때면 세상스럽게 또 한해가 시작되 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기에 한해를 넘겨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은 《떡국을 먹었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냈으며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하는 말이 아 래사람들에게 나이를 묻는 말로 쓰여졌다. 《세주들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지 않음수 없으며 어른들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르지 않음수 없다. 설날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하였는데 고려약재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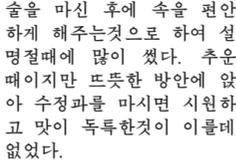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 흰쌀로 만든 가래떡을 썰어서 고기장국에 넣고 끓인것이 설음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떡국이다. 떡국은 옛날부터 설날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되어왔다. 뜨거운 떡국을 후후 불며 먹을 때면 세상스럽게 또 한해가 시작되 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하기에 한해를 넘겨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뜻은 《떡국을 먹었다》는 말로 형상적으로 나타냈으며 《떡국을 몇그릇 먹었느냐?》하는 말이 아 래사람들에게 나이를 묻는 말로 쓰여졌다. 《세주들은 설을 맞으며 축배를 들지 않음수 없으며 어른들의 설음식상에 술이 오르지 않음수 없다. 설날에 마시는 술을 《세주》라고 하였는데 고려약재인 도

라지, 흰삼주뿌리, 계피나무 열매 등을 넣고 빻은 도소주와 산초, 잣을 넣고 만든 초백주 등을 썼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은 설날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이 없었으며 《세주들은》이라 하여 엄격히 나누는것으로 고지었다. 《웃진 애비같다》 웃놀이는 우리 인민이 옛날부터 설명절에 제일 즐겨한 민속놀이였다. 설날이 오면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데 어울려 웃가락을 던지고 말을 전진시키며 서로 승부를 겨루었다. 《웃진 애비같다》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머리 허연 사람이 젊은이나 어린 애한테 지고는 한번만 더 하면 다음에는 꼭 이길것 같아 또 하자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 올해 공화국선수들이 참가하게 될 국제 경기 들

2월	백두산상국제 씨구축전 (조선)	단판로브국제레슬링경기 대회(벨라루스)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 (중국 홍콩)	3월	세계여자빙상쇼케이 1부류 2조 선수권대회(프랑스)	4월	국제특상맹맹-만경대상 마라톤경기대회(조선)	5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프랑스)	국제특상경기대회 (중국	대북)	6월	아시아에술체조선선수권대회(우즈베크스탄)	7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스파냐)	8월	평양탁구초청경기대회 (조선)	9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마카오)	세계에술체조선선수권대회(우크라이나)	아시아활소년선수권대회(중국 대북)	10월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중국)	11월	세계력기선수권대회(장소 미정)	12월	세계컵유술경기대회(장소 미정)	월드컵국제배구경기대회(벨라루스)	짧은주루속도빙상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경기(장소 미정)	마카오국제마라톤경기대회(중국 마카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맛 좋은 설명절음료들



피로를 푸는데 효과가 크며 술을 마신 후에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설명절때 많이 썼다. 추운 때이지만 따뜻한 방안에 앉아 수정과를 마시면 시원하고 맛이 독특한것이 이데 없었다. 과일을 가공하여 만든 전통적인 민족음료인 수정과는 과일이 익는 절기에 따서 잘 보관하였다가 명절이나 뜻깊은 날에 맛볼수 있게 한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명성을 보여주는 좋은 유산의 하나이다.

수정과는 물을 담가서 불군 꽃감을 생강과 계피나무를 끓여서 우린 꿀물에 타고 그우에 잣알을 띄워서 만든 우리 나라 민족청량음료의 한가지이다. 수정과는 피를 맑게 하고

식혜 식혜는 길금가루를 우린 물에 흰쌀밥을 넣어 식혀서 만든 음료이다. 달짝지근한 물에 쌀알이나 잣알을 띄운 것이 별미이어서 설명절음료로 많이 쓰여졌다.

최근 날씨가 차지면서 돌림감기가 많이 돌고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보통감기와 돌림감기로 구분한다. 보통감기에는 계절성감기와 코감기가 있다. 돌림감기는 여러가지 류형의 감기비루스들이 코, 목구멍, 숨길 등에서 일으키는 병인데 민간에서는 독감이라고도 한다. 돌림감기에 걸리면 보통감기때보다 처음부터 중하게 앓는것이 특징이다. 돌림감기를 자주 앓게 되면 몸안의 면역이 약해지고 또 이로 인한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제때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

야 한다. 돌림감기를 미리 막자면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을 일상적으로 단련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또 감기에 걸렸다 해도 경하게 앓지 않는다. 돌림감기를 미리 막자면 감기를 미리 막자면 가정과 일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자기가 살며 일하는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거두고 청소와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갈이도 자주 해야 한다.

특히 머리와 손발간수를 잘해야 한다. 머리와 손발이 차면 몸의 컨디션이 낮아지며 돌림감기에 쉽게 걸릴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몸을 차지 않게 건조하는데 주의의를 돌려야 한다.

# 유모아 앞날을 내다보는 사위

시집갈 나이가 된 딸을 데리고있는 아버지가 앞일을 잘 내다볼줄 아는 사람을 사위로 맞으리라 걱정하고있다. 어느날 길을 가던 그 사람은 나무꾼아이 여럿이 말을 하고있는것을 보았다. 한 아이가 《하, 레일 비가 오겠는걸.》 하자 다른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그때도 그 아이는 계속 우겨댔다.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이름과 사는곳을 물어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다음날 비가 왔다. 그는 그길로 나무꾼아이를

사위로 맞아들였다. 그후 어느날 그는 사위에게 말을 건넰다. 《자네는 비가 오리라것을 내다보는데 다른것도 많이 알고있을터이니 어디 이야기 좀 하게.》 《이 사람, 바로 말하게. 자네야 아무날 비가 오리라것을 신통히도 알아맞히지 않나?》 《그것은 제가 그전에 음을 읽은적이 있었는데 그후로는 비가 오려면 온몸이 가려우므로 그렇게 말해요.》

# 스 키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스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단히 개량하였다. 스키는 여러가지 소재로 만든다. 원래 나무로 만든 스키를 1930년경부터 합판용 재료로 하여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1936년 제4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때부터는 이것을 널리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경금속이나 합성수지로 만든 스키가 널리 쓰이고있다. 스키는 경기종목에 따라 거리지치기용, 내리지치기용, 조약용, 자유형용, 행군용 및 동산용스키로 구분한다. 스키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경기종목과 키에 따라 스키를 선택한다. 스키경기에는 여러 세부종목들이 있다.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공화국에서는 스키경기가 널리 대중화되고 있으며 스키에 호가들도 늘어나고있다.

스키는 경기종목에 따라 거리지치기용, 내리지치기용, 조약용, 자유형용, 행군용 및 동산용스키로 구분한다. 스키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경기종목과 키에 따라 스키를 선택한다. 스키경기에는 여러 세부종목들이 있다. 산이 많은 지대적특성에 맞게 공화국에서는 스키경기가 널리 대중화되고 있으며 스키에 호가들도 늘어나고있다.

온도가 50~60°C되는 물에 열내의를 넣고 충분히 데워낸다. 만약 물 열내의가 들어날 때 물에 1~2시간동안 담고 있었다 말리우면 원래 모양대로 줄어든다.

가감기를 미리 막자면 가정과 일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 자기가 살며 일하는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거두고 청소와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갈이도 자주 해야 한다.

# 흰머리 카락이 나오면

◎ 매일 거꾸로 서서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광택이 나고 흰머리카락이 나오는것도 방지할수 있다.

◎ 날참깨기름에 적당한 량의 뽕잎을 넣어 진하게 달인것(찌꺼기는 버린다.)에 물을 타서 머리를 씻으면 머리카락이 많아지고 흰머리

카락도 없어지면서 점차 검게 된다. ◎ 호두나무껍질을 짓찧어 그 즙으로 머리를 감는다.

# 단편 소설

# 무 지 개 (3)

그는 고개를 들었다. 《상품광고문제는 좀 생각해보겠어요.》 병화는 흔연히 대꾸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심중해서 나쁜건 없지요. 어쨌든 전 신문사가 잘되기 바랄뿐입니다. ... 이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승용차쪽으로 돌아설 때였다. 머리카락이 희-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때같은 비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년간 강수량이 1000~1400mm 인 이곳 남동부지방의 한여름철에 드문히 볼수 있는 자연현상이다. 병화는 날렵한 동작으로 차문을 열었다. 《어서 오르십시오.》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처녀사장이 차에 오르는 것을 도우주었다. 경아가 미안해하는 눈길로 돌아보자 병화는 억수로 퍼

붓는 비속에서도 소리없이 웃었다. 이쪽에서 웅크린 마음을 털어버릴만치 푸근한 미소가 동그런 얼굴에 맺혔고있었다. 잠시후 소나기는 울 때처럼 짙어졌다. 무심결에 차창밖을 내다보던 경아의 두눈에 정기가 돌았다. 맑게 개인 하늘가에 칙칙령통한 무지개가 건듯 비껴있었건만... 승용차발동을 걸 생각도 잊고 무지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처녀의 눈앞에 오래전의 일이 실상히 떠올랐다. 8년전 어느 여름날, 그날 대학에서 돌아오던 경아는 신문사앞마당에 술한 동모들이 모여 덩실덩실 춤추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현숙하게 생긴 녀인과 함께 춤추고있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한동안 놀란 눈길로 지켜

고개를 힘있게 끄덕이는 아버지의 눈가에 납물같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15년전 당국의 반통일죄행을 규탄하는 기사를 쓴 《죄》로 감옥에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심화병으로 운명하자 남조선사회에 침범고 두살짜리 외동딸을 품에 안은채 태평양을 넘어온 아버지, 그 시절 아버지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별안간 소나기가 쏟아졌다. 동모들의 몸은 순식간에 젖어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도 6.15통일시대가 도래한것을 축하해서 비를 보내준다며 기세를 올렸다. 덩더쿵, 덩더쿵- 쿵쾅, 쿵쾅- 장교와 병과가 흥취를 돋우는 속에서 비에 젖고 회열에 취한 동모들이 두팔을 너풀너풀 흔들며 돌아갔다. 경아도 아버지와 인숙이라는 녀인과 한데 어울려 신나게 춤추고있었다. 불시에 소나기가 짙

고개를 힘있게 끄덕이는 아버지의 눈가에 납물같은 눈물이 고여올랐다. 15년전 당국의 반통일죄행을 규탄하는 기사를 쓴 《죄》로 감옥에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심화병으로 운명하자 남조선사회에 침범고 두살짜리 외동딸을 품에 안은채 태평양을 넘어온 아버지, 그 시절 아버지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별안간 소나기가 쏟아졌다. 동모들의 몸은 순식간에 젖어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하늘도 6.15통일시대가 도래한것을 축하해서 비를 보내준다며 기세를 올렸다. 덩더쿵, 덩더쿵- 쿵쾅, 쿵쾅- 장교와 병과가 흥취를 돋우는 속에서 비에 젖고 회열에 취한 동모들이 두팔을 너풀너풀 흔들며 돌아갔다. 경아도 아버지와 인숙이라는 녀인과 한데 어울려 신나게 춤추고있었다. 불시에 소나기가 짙

었다. 아버지가 하늘가를 손짓했다. 《무지개로군.》 경아와 인숙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수직으로 깨끗이 담은것처럼 맑은 하늘에 천사의 미소같은 무지개가 걸려있었다. 얼핏 보면 한쪽끝은 이곳에, 다른쪽 끝은 저 멀리 태평양너머에 걸려있는듯싶었다. 《하, 저 무지개를 타고 고향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구나.》 신문사사장이라는 체면과 꺾다고 할수 없는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공상이었지만 경아는 감히 웃을념을 못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싶었으면 그러실까. 그때부터 무지개는 처녀의 가슴속에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통일조국의 상징

란이 생겨났건은 그 무렵이었다. ... 느닷없이 날아든 목소리가 추억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 《사장은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편집부장님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무지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아시겠지만 무지개란 대기중에 뿌려진 수많은 물방울들의 해빙결로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번개나 우뢰소리따위를 숭배하던 아니미즘의 라성때 문인지 무지개에 자기의 소원을 함부로 얹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지요. 무지개는 어디까지나 무지개에 불과하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벌써...》 경아도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것을 보고있었다. 무지개가 사라진 하늘은 별스레 허전해보였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속이 빈것

처럼 허우룩해졌다. 어느때 같으면 무지개에 대한 병화의 견해를 듣고 잡자고 있지 않았을것이다. 했으나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는 한때 사춘기 소녀처럼 무지개에 매혹되었었다. 물론 부친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 즈음 경아의 심중에서는 이상아릇한 변화가 일어나고있었다. 그 엄혹한 현실은 처녀의 가슴속에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통일무지개마저 서서히 멀어내고있었다. 나직이 한숨을 내린 경아는 흥심없이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란이 생겨났건은 그 무렵이었다. ... 느닷없이 날아든 목소리가 추억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웠다. 《사장은 무지개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편집부장님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쉬운건 무지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아시겠지만 무지개란 대기중에 뿌려진 수많은 물방울들의 해빙결로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번개나 우뢰소리따위를 숭배하던 아니미즘의 라성때 문인지 무지개에 자기의 소원을 함부로 얹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건 아니지요. 무지개는 어디까지나 무지개에 불과하지요. 아, 저것 보십시오. 벌써...》 경아도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것을 보고있었다. 무지개가 사라진 하늘은 별스레 허전해보였다. 그와 함께 그의 마음도 속이 빈것

